

## 작품 개요

「접동새」는 작곡자가 28세 때인 1950년 1월 10일 김소월(金素月, 1902~1934)의 시에 곡을 붙인 작품이다.

이 곡은 나운영이 자신의 가곡 중에서 가장 애착을 느낀다고 한 작품으로서 우리나라 가곡 사상 최초(?)의 판소리풍의 곡이다.

거문고와 대금, 피리를 연상케 하는 전주에 이어 '접동 접동 아 울오라비 접동'의 주제가 나온 다음에 가야금과 장구를 연상케 하는 간주에 이어 판소리의 멋과 맛을 풍기는 '진두강 가람 가에 살던 누나는...'이 이어진다. 장단, 가락은 물론이고 특히 화성 처리에 있어서 많은 고심을 한 이 곡은 다시 거문고와 대금, 피리를 연상케 하는 후주로 조용히 끝난다. 이 곡은 1952년 12월 27일 부산 이화여자대학교 강당에서 열린 <나운영 제1회 작품연주회>때 김천애(金天愛, 1919~1995) 선생에 의해 초연되었고, 1952년에 발행된 나운영의 첫번째 가곡집 『아흔 아홉 양』에서 출판되었다.

- 나운영 수상집 4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중에서 -

## 작품 해설

서정적이면서도 토속적 정서로 유명한 김소월의 시를 가사로 한 이 가곡은 접동새의 울음소리를 묘사한 음형이 성악파트와 피아노 반주 부분에서 대화식 기법으로 교차되며 선율을 풀어 나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당김음을 사용한 완전4도의 음정이 이 곡의 핵심적인 모티브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완전4도의 음정은 선율선에서 뿐만 아니라 반주 화음의 기초적 음정으로서 주로 완전4도의 병행화음이 반주음형의 중심이 되고 있다.

즉 병행4도화음의 반주음형·당김음과 장식음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리듬과 3/8·6/8·9/8등 3박 계통의 경박자를 그 기본박으로 한 점 등은 민속적 색채가 이 곡의 중심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요소들이다. 이 곡은 형식면에서 크게 세부분으로 나뉜다. 첫 부분은 전주를 포함해서 마디 42까지이다. 처음부터 마디 9까지는 전주부분으로서 접동의 울음소리를 표시한 완전4도의 음정과 꾸밈음의 등장, 그리고 낭만적인 하행 반음계적 선율이 접목되어 있다. 10·11 마디에서 시작되는 선율 역시 접동새의 울음소리를 묘사하면서 마치 레치타티보와 같은 역할을 한다. 마디 15부터 마디 19까지는 간주부분으로 본 곡이 시작되는 일종의 전주이다. 마디 20에서 시작되는 선율은 정형적인 4마디 단락으로 종지가 이루어져 있고 선율선 또한 온음계적 마단조의 음계이면서도 5음음계의 색채를 강하게 풍기기 때문에 대중적인 친근감을 느끼게 해 주는 형식미도 갖추고 있다.

마디 36에서 마디 42까지는 중간부분으로 진행하기 위한 일종의 전환구(Transition)이다. 선

올에는 약간의 반음계적 음정이 가미되고 있다. 마디 43·44는 완전4도를 근간으로 하는 분산화음 구조의 새로운 반주음형으로 바뀐다. 마디 45부터 시작되는 중간부분의 선율은 도약진행과 반음계적 선율을 적절히 혼용함으로써 대단히 역동적이면서도 서양적 색채가 뚜렷한 구성미를 느끼게 한다. 마디 58부터는 종결부분으로 향한다. 음형도 첫부분의 음형으로 바뀌고 선율선도 온음계적으로 읊조리는 듯한 자연적 단음계로 되어 있어서 다시 첫부분의 정서와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러나 반주부분에서 반음계적 대선율이 흐르는 대위법적 기교가 서양의 음악적 양식을 사용하여 종결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곡은 전체적으로 한국적 음정과 리듬을 강조하면서 서양의 음악어법인 악곡의 틀과 구성, 그리고 역동성을 강조하기 위한 반음계적 도약적 음계가 혼합된 양식적 기법을 나타내 주고 있다.

- 이충자, 나운영의 가곡 작품의 유형별 분석, 음악과 민족 제9호, 민족음악연구소 중에서 -

